



GC녹십자-태국 적십자사, 협장분획제제 인력양성
GC녹십자는 태국 적십자사와 협장분획제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현지 생산 인력을 위한 협장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박형준 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왼쪽)과 두차이 차이 와니치시리(Dootchai Chaiwanichsiri) 태국 적십자사 협액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C녹십자



애경산업, 에너지날 맞아 '애·탄·다' 캠페인 진행
애경산업이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탄소 다이어트 사내 문화 형성을 위한 '애·탄·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탄·다' 캠페인은 탄소 배출 증가로 애타는 지구를 위해 진행하는 '애경산업 탄소 다이어트' 사내 캠페인으로 업무와 일상 속에서 간단한 실천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 감축 활동이다.

/애경산업



동아오츠카,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장병 지원
동아오츠카는 지난 7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육군 수도기계보병사단(수기사) 장병들에게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 2000개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장병을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수해 복구와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아오츠카



에이스침대, 배송 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샵 성료
에이스침대가 배송 협력사 마이트앤메인(M&M)과 함께 진행한 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샵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양사 임직원, 배송 매니저 등 총 10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은 프리미엄 배송을 위한 배송 전문 매니저들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에이스침대



동국제강그룹, '815lnn'에 2060만원 후원
동국제강그룹이 한국해비타트 주관 2025 '815lnn'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815lnn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 마련 캠페인이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및 가족 230명 참가비 1245만원을 더해 2060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했다. 가수 선이 동국제강그룹 후원금 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강

현대차그룹 3대 회장, 글로벌 車산업 이끈 인물 기념상

美 '오토모티브 뉴스' 창간 100주년 정주영·정몽구·정의선 회장 선정 車 강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할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과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미국 유력 매체의 100주년 기념상을 받았다.

18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과 가문을 선정해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은 토요타의 아키오토요다 회장,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 회장, 제너럴모터스(GM) 메리 바라 회장, 포드의 벌 포드 회장 등과 함께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세계적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둉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볼케 현대차그룹 사장 등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간 100주년인 올해는 비전, 혁신, 리더십으로 세계 자동

차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며 "정주영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정의선 회장은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에서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키는 등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로보틱스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분야로도 진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이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오늘 날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변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 취약계층에 제철음식 나눠

임직원 봉사단, 무악동성당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행촌동 천주교 무악동 성당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제철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화와 '지원을 일구는 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제철 음식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 임직원 20여 명은 무악동·교남동 일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직접 찾아 삼계탕과 포도 등 보양식과 제철 과일을 전달했다.

한화 이영찬 인사지원팀장은 "폭염과 폭우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한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서 취약계층 가구에 삼계탕과 포도 등 제철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한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그룹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포레나도서관 조성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내달 19일까지 공모전 접수

LG화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한다.

LG화학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전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지역사회와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주제는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쓰임을 더해 지역과 일상을 바꾸

는 방법'으로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LG화학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장애보조기구, 놀이터 기구, 조명, 생활소품 등 LG화학의 사업과 연계된 제품 아이디어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음 달 19일까지 기대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6(인)팀을 대상으로 LG화학의 친환경 소재가 적용되는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유혜온 수습기자 dhaledhale@

한국타이어, 인니서 해안숲 조성 활동

맹그로브 나무 5000그루 식재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 공장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브카시 지역 세데르하나 해변 일대에서 총 5000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해안숲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브카시 해안에 총 7500그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했다. 맹그로브는 지면에 강하게 뿌리내림으로써 해안 침식을 예방하며 탄소 흡수력과 오염 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기능도 탁월해 해양 생태계 보호의 핵심을 담당한다.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타이어 기부',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발육 부진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타이어 기부',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발육 부진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보직 인사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 김성균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이상열 △경영지원본부장 안병영 △전략정책연구본부장 원전정책연구실장 김창훈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김병우

신한證,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

주니어보드, 예방교육 진행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사기예방 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 주니어보드는 지난 14일 마포 종합노인복지관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SMS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한투자증권 사내 MZ 세대로 구성된 오피니언 리더인 주니어보드가 기획한 ESG경영 실천 및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악성 앱, 원격 조종, 정부 기관 사칭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 수법에 대해 시니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인사

▲ 나찬순(행년 86세)씨 별세, 남승래·남인자·남경자·남승남·남은선씨 모친상, 김홍익·김태환·황용성·이성용(유브레이커커뮤니케이션 대표)씨 장묘상 = 17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2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10분, 장지 충북 영동 선영. 02-3010-2000

부음